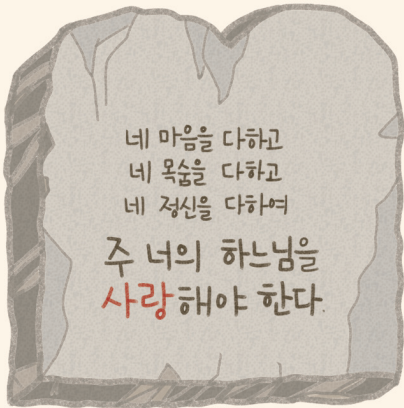


정신주보



마태 22,37

그림 | 노젬마

입당송 시편 105(104),3-4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제1독서 탈출 22,20-26**화답송** 시편 18(17),2-3,3,3,4-4.47과 51(◎ 2)

-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제2독서 1테살 1,5-10**복음환호송** 요한 14,23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마태 22,34-40**영성체송** 시편 20(19),6 참조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나의 묵주 이야기



친한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해 후에도 무거운 마음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저를 보신 신부님께서는 자신의 닳고 닳은 묵주를 제 손에 쥐어주시며 무거운 마음은 성모님께 봉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마음이 힘들 때마다 자연스레 신부님이 주신 이 묵주를 찾게 됩니다.

- 김화진 헬레나 / 창5동 성당 -

회사 위치에 맞춰 자취 생활을 한 지가 어느새 12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독립했을 때, 작은 원룸 생활을 하게 되면서 집에 있던 물품 중 꼭 필요한 것들만을 챙겨 나오게 됐는데 그중 하나가 이 묵주였습니다. 사실 제 묵주는 그대로 집에 두고선 가볍고 잡기 좋은 어머니 묵주를 들고나온 것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쥐고 열심히 기도하셨던 이 묵주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의 자취 생활을 잘해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 박영민 베드로 / 가양동 성당 -



작년 10월에 묵주 기도 성월을 맞아 부서원의 제안으로 한 달 동안 고리기도를 바쳤습니다. 매일 다섯 명의 부서원이 돌아가면서 한 단씩 바치는 방식이었죠. 저는 아침 채비 중, 출근 중, 점심 먹고 산책 중, 퇴근 중 혹은 잠들기 전에 짬을 내서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은 꼭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숙제였습니다.

- 김정민 소피아 / 삼각지 성당 -

몸은 멀리,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김도연 스테파노 신부님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대학교사목부

누구에게나 풋풋했던 첫사랑의 기억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첫사랑이 달콤한 추억이건, 씁쓸한 기억으로 남았건 누군가를 사랑했던 그 순간의 진심만큼은 분명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저에게 첫사랑은 어설피고 서투르기만 한, 어리숙한 풋내기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 예전의 그 어리숙함은 사라지고 인간관계의 처세술만 늘어간 듯하여 때로는 과거의 순수했던 그 시절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끔씩은 옛날의 기억에 너무나 얼굴이 화끈거려 혼자 이불을 뒤집어쓰고 이불킥을 날리곤 합니다.

하느님을 처음으로 사랑했던 순간도 그러했습니다. 처음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하느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성당 친구들과 새벽 미사를 봉헌하고 함께 모여 해장국을 먹은 뒤에 하루 종일 낮잠만 자도 마치 하루에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것처럼 어찌나 뿌듯하던지! (새벽 미사를 마치고 아침부터 낮잠을 자는 잉여로움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숙해졌습니다. 하느님과 대화하는 법을 알게 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일보다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서도 여전히 처음 하느님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 때의 풋풋했던 제 모습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비록 어설피고 서투른 풋내기의 사랑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으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웃을 만나 알게 되고 이별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사람들과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사제직의 특성상 지금은 기억의 한 편에서 희미해져 가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헤어짐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기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두기로 이별을 준비하는 관계의 기술이 결국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기보다 형식적으로 관계 맺는 법에 익숙해져 간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처음과 달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만큼이면 됐지.’ 만족하면서 거리두기를 이어가는 모습 속에서 하느님도 이웃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사랑의 기술만 늘어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7),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9)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전해주시면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는 이것저것 재지 말고 전심을 다 해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첫사랑에게 세상 모든 것이라도 다 내어줄 듯 순수했던 그때 그 시절처럼 말입니다. 요즘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핑계로 하느님과 이웃 모두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감염위험은 피하고 마음은 전보다 더 가까이함으로써 신앙인으로서 실천해야 할 하느님 사랑, 이웃사랑의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녀 카테리 테카크위타

출생: 1656년 (현재 뉴욕에 해당하는 지역 출생) 사생: 2012년 10월 21일 축일: 4월 17일

<환경과 생태의 수호성인>

성녀는 “자연의 아이”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연의 리듬을 이해하는 성녀의 부족 특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성녀는 주변 동식물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숲에서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하느님과 대화하곤 했는데 마을의 소음에서 벗어나 피조물의 침묵 속에서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에로니오X주보편집부

번역부(에로니오)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을 참고 하세요.



봉선아 가밀라

하비에르 학교의 평범한 일상

아침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시간, 하비에르 학교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의 아침은 일찍 시작됩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등교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면 저도 슬슬 일어날 준비를 합니다.

제가 학교에 처음 도착한 것은 2020년 2월 첫날이었습니다. 아는 현지어라고는 “안녕하세요”뿐인 상태였습니다. 당시 봉사자 숙소엔 빈방이 없던 탓에 저는 우선 학생 기숙사 건물들 가운데에 있는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아이들의 일상에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길에서 만난 아이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느라 발걸음이 늦어지는 것은 곧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오후에도 아이들은 분주합니다. 텃밭에 물을 주는 아이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식사 준비를 하는 아이들, 뒷마당에서 빨래하는 아이들, 책을 읽는 아이들……. 무엇이 그리도 즐거운지 항상 까르르 웃고 밝게 인사하는 아이들을 보면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도 환해집니다. 만일 제가 아이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며 기웃거리기라도 하면,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걸 알면서도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해줍니다.

저녁 식사 후 방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 재미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공부하는 아이들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일 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 하지만 마주치는 아이들마다 인사를 건네는 통에 자꾸만 걸음을 멈추게 되고, 저 역시 그날 공부한 크메르어를 써보려고 더듬거리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방문 앞에 당도할 즈음에는 어느새 30분에서 한 시간이 훌쩍 지나 있곤 합니다.

아이들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돌아보니 실은 아이들이 제 선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로부터 비단 언어만 배운 것이 아니라, 꽃피고 있는 ‘사랑’을 보았고 배웠습니다. 그 어떤 거리낌이나 낮가림 없이, 활짝 열린 마음으로 가없는 미소와 사랑을 주는 모습이 예쁘고 신비롭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제가 만난 캄보디아 사람들은 활짝 열려 소박하고도 겸손하게, 온전히 사랑하며 작은 것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것이 익숙한 이들에 비해, 여전히 어떤 생각의 틀에 갇혀서 사랑 앞에 망설이는 저의 모습이 부끄러울



방과 후 전통춤(암사라 댄스) 수업

때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아픈 역사의 잔재가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오랜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아온 캄보디아에서, 예수회 미션이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 가장 소외된 지역에 세운 학교가 이 하비에르 학교(Xavier Jesuit School Cambodia)입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지어졌고 지금도 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 중 기숙사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가정 형편이 특히 어려워 학비를 지원받아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비록 캄보디아의 교육 현실은 아직 열악하지만, 저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보며 마치 황폐한 땅에서 놀라운 생명력으로 살아남아 싹을 틔우기 시작한 나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들과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후원하는 분들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크신 손길을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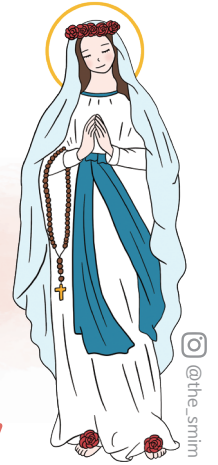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내려진 휴교령 이후, 아이들의 소리로 가득하던 교정에는 무성하게 자라난 나무들만이 시간이 꽤 흘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소중한 그리운 시간으로 기억되는 날들입니다. 그리움으로 더욱 무르익었을 사랑을 지닌 이 아이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아도 행복할 줄 아는 이 아이들, 다른 사람을 존재 자체로 사랑할 줄 아는 이 아이들에게서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이 이미 싹을 틔우고 있음을 봅니다. 아이들이 보여주는 희망이 캄보디아뿐 아니라 더 널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닿고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아요
www.inigo.kr

INI60



All about 목주 기도



매일 차고 다니는 목주팔찌, 목주반지이지만 정작 목주 기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른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목주 기도 성월을 맞아 목주 기도에 대한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사실들, 함께 알아보아요.



수녀님, 목주 기도.. 단조롭고 기계적인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마도 똑같은 기도문을 반복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어린 아기가 사랑의 마음으로 엄마를 계속 부르는 것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엄마는 그런 아기를 더욱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아기의 마음을 헤아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을까요? 성모님께서도 당신을 끊임없이 부르는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실 거예요. 반복적이지만 어린이의 마음으로 성모님을 찾는 목주 기도는 훌륭한 기도랍니다.



목주 기도, 어떻게 마음으로 바쳐야 하나요?



먼저 지향을 바친 후, 신비를 묵상하고,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종종 분심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렵기도 하죠. 기도 중 분심이 들어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바치려는 노력과 마음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으로만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각각의 신비를 묵상하며 바치면서 그 신비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도 성찰한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렇다면 각각의 신비들은 어떻게 묵상해야 하나요?



단순히 신비를 생각하고 그 상황을 추리하는 것도 좋지만 하느님을 만나는 일에 더 마음을 써보세요. 예를 들어, 수난의 장면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상상해 보세요. 그 상황 안의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내가 그분을 바라본다고 믿으며 눈을 마주쳐 보세요. 그 장면 속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기도 안에서 느끼는 것이예요.



성모송은 도대체 어떤 기도이기에 목주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나요?



성모송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와 함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천사의 인사’와 ‘엘리사벳의 찬양’ 그리고 ‘교회의 전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루카 1,28)라는 인사말은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인사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느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인사말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인사말이 있을까요? 성모송만큼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는 없을 거예요^^



목주 기도를 통해 성모님께 전구한다고 하는데, 전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성모님께 전구한다는 것은, 성모님께서 나를 위해, 또 내 입장에서 하느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성모님의 전구의 효과는 어느 기도보다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모님의 청을 거절치 않으셨어요. 성모님께서 전구해 주시는 목주 기도, 정말 든든한 기도가 아닐까요?

참고문헌 [기적의 목주 기도 / 김석원 신부] 아이콘 designed by [Freepick] from Flaticon

[편집부 최유진 스타일]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10월・11월 특강

주제 기도-하느님과 나(10월), 두려워 말라(11월)

일시 매주(금) 15시 30분~16시 30분

장소 성 정하상 기념경당 문의 02)3147-2402

10월 23일	마진우 신부	10월 30일	조명연 신부
11월 6일	김민호 신부	11월 13일	유수일 주교